

## 발표 요약문

### 해양 디지털화의 도전과제: 섹터, 기업,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마레 스트레망

디지털혁신 이사, 반 오드

키워드: 해양 디지털화 - 섹터, 기업,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디지털화는 해양 섹터의 열쇠다. 즉, 해양 섹터를 구성하는 조직들은 온갖 신기술 (AI, 블록체인, 가상현실, 앱 구축 플랫폼, 사이버 보안, 데이터 애널리틱,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이 제시하는 기회를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 디지털은 해양 섹터와 기업, 스타트업의 운영과 고객 기반, 공급망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가?

해양 섹터는 대체적으로 신기술 채택이 더디다. 때문에 가치 사슬에서 기존 섹터의 자리를 점령하거나 고객에게 탁월한 가치를 제공해 줄 새로운 (판도를 뒤흔들) 섹터의 등장에 극도로 취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산업과 비즈니스는 설 자리를 잃고 협상력을 상실하게 된다. 게다가 해양 섹터는 무 배출 수준의 배출 감축, 규제 강화, 새로운 글로벌 정치 시대의 도래 등 수많은 도전과제에 당면하고 있다.

디지털 신시대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디지털에 대한 지식 확대 속도를 높이고 새로운 업무 방식 (린, 린 스타트업, 애자일)을 습득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서 파괴적 혁신이 시작되며 동시에 미래의 새로운 시장 기회가 대두된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은 해양산업에서 분명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들을 합류시키는데 고전하고 있다. 기업에서 신기술을 신속하게 구현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도 여러 이유 중 하나다. 그럼에도 스타트업은 성장하고 있고 해양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부 스타트업은 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